

■ 영상택배 시즌2 - 장성 갈재길 이야기



이번 호 뉴스레터와 함께 전해드리는 영상택배는 우리땅 걷기 신정일 이사장이 전하는 장성 갈재길 이야기입니다. 전남 장성 북이면과 전북 정읍 입암면을 이어주는 “갈재”는 전라도에서 서울을 가기 위해 반드시 지나야하는 길입니다. 지금은 국도와 고속도로, 고속철도가 갈재 주변을 그물처럼 지나고 있습니다. 갈재에 새겨진 역사의 발자국과 만나는 영상 택배 전해드리오니 갈재의 속살로 향하는 걸음에 함께 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동화의 세계 순례(3)

할아버지 산이 불타요!!

김천식(문학박사 / 한국고전문화연구원 전임 연구원)



하이디가 산이 불탄다고 하였는데, 책만 볼 때는 이해가 안됐다. 그런데 알프스에서 그 광경을 목격하였다.

할아버지의 보살핌으로 잠을 포근히 잘 잔 하이디는 창으로 비취는 아침햇살에 잠이 깨었고 알프스 고원에서 생활을 시작한다. 하이디는 눈에 들어오는 알프스의 풍경에 좋아서 어찌할 바를 모르며, 강아지처럼 뛰어 다니면서 지천에 깔린 야생화들을 쓰다듬기도 하고 꺾어서 작은 앞치마에 넣기도 하며 그야말로 신이 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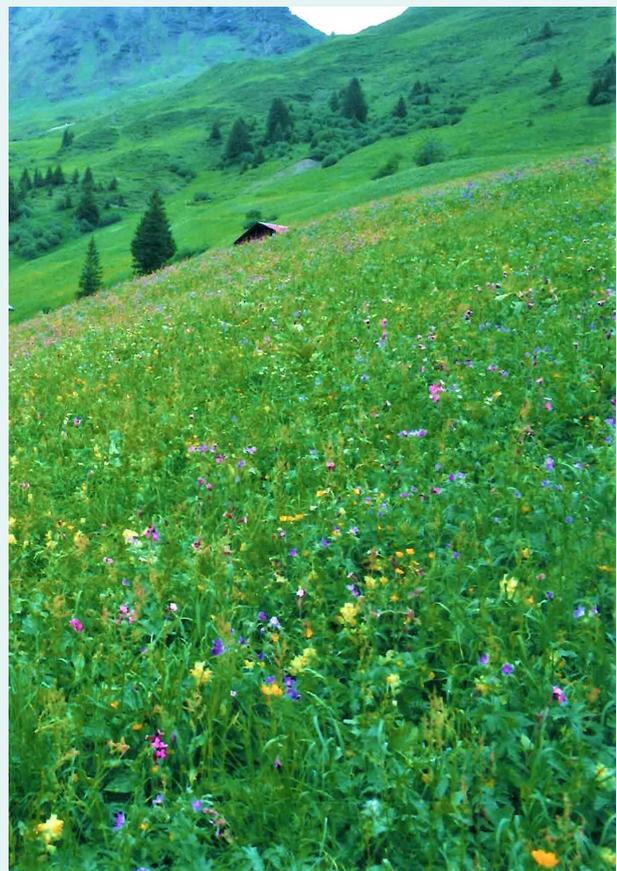
하이디의 마음은 기실 작가 자신의 마음이라. 그녀가 체험한 알프스의 감동을 하이디를 통해 표현한 것이다. 그래서 「알프스 소녀 하이디」의 저자 요한나 슈피리는 그의 글에서 알프스를 그림 그리듯 묘사한 때문에 동화는 수채화를 보는 듯하다.

「하이디는 알프스 고원을 즐겁게 올라갔다. 밤새 바람이 마지막 조각구름까지 말끔히 몰고 가서 하늘은 온통 쪽빛으로 내려다보고 있었고, 빛나는 해는 하늘에서 푸른 고원 풀밭 위에 부드러운 햇살을 뿌리고 있었다. 노랗고 푸른 갖가지 작은 꽃들은 꽃받침을 활짝 열고 하이디를 보며 즐겁게 웃고 있었다. 곱고 빨간 앵초가 무더기로 피어 있는가 하면, 예쁜 용담이 질푸른 빛으로 은은히 빛나고, 잎이 나긋나긋한 금빛 시스투스가 지천으로 피어 찬란한 햇빛 속에서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까딱이고 있었다. p.53」

실제로 그곳 스위스 알프스에 가보면 그녀의 글에서 표현된 것과 똑 같은 경치를 보게 되는데, 나도 그 경치의 아름다움에 넋이 나간 적이 여러 번 있었다. 사진들은 그 알프스의 풍경을 감동으로 찍은 것이다.



코발트빛 용담



야생화가 지천인 알프스 풍경

작가의 글을 다시 보면, 「어느덧 하루가 다 가서 해가 먼 산 너머로 지려고 했다. 하이디는 다시 땅바닥에 앉아 금빛 저녁 햇살을 받아 은은하게 빛나는 푸른 초롱꽃을 바라보았다. 풀들은 황금빛으로 물 들었고 위쪽 바위는 아슴푸레 빛나기 시작하였다.p.67」 고 저녁 풍경을 그린다. 그런데 하이디는 갑자기 소리치며 근처에 있던 페터를 불렀다.

“페터! 페터! 산에 불이 났어! 산 전체가 활활 타고 있어 저기 봐 높은 바위산이 다 빨갱잖아!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워!” 옆에 있는 소년 페터는 “항상 그래, 그런데 불이 난 게 아냐”라고 대꾸했지만, 그것이 왜 그런지 설명은 못했다.

집으로 돌아온 하이디는 할아버지에게 조금 전에 본 불타는 산에 대해서 물었더니, 할아버지는 “그것은 말이다, 해님이 산을 넘어가면서 산한테 ‘잘 자’라고 인사하면서 제일 붉고 예쁜 햇살을 던져주기 때문이란다.”라고 설명해 주었다.

하이디와 지내는 동안 천진난만한 하이디로 인해 돌덩이 같았던 할아버지가 조금씩 부드러워 졌고 마을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하였다. 할아버지는 하이디가 요청하자 이웃으로 내려가서 집을 고쳐주기도 하고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였다. 이모 데테가 갑자기 나타나 프랑크푸르트의 부잣집에서 심부름할 여자아이를 원한다며, 반 강제로 하이디를 끌고 가 버렸기 때문이었다.



할아버지가 산 아래 이웃집을 고쳐주는 장면의 책 삽화



하이디는 결국 이모에 의해 잠시 동안이나마 정들었던 고원의 집과 할아버지 그리고 페터와 헤어져 프랑크푸르트로 가게 되었다.

■ 천년 암자에 오르다

사모곡이 들려오는 <무척산 모은암> 네 번째 이야기 “전설의 구지봉”

유영봉(연구원 평의원 / 전주대학교 역사문화콘텐츠학과 교수)



구지봉 | 푸른 소나무가 에워싼 정상에 남근석 하나가 우뚝하다.

수로왕비릉에서 좌측으로 보이는 구지터널의 건너편이 구지봉이다. 주변의 지형을 훑어보면 분산에서 내려온 지맥이 이곳에서 흐름을 멈추어 작은 봉우리 하나를 세웠다. 멀리서 보면 영락없는 거북이 머리 모양이오, 남성의 귀두龜頭 형상이다.

터널 위를 따라 구지봉으로 오르는 길목에 소나무가 울창하다. 단정하고도 아름답게 다듬었으니, 가벼운 산책로로 안성맞춤이다. 이 길을 따라가 보면 거의 반원형으로 솟은 봉우리가 새삼 확인된다. 구지봉 앞쪽은 김해박물관이다.

구지봉 정상에는 거대한 남근석 하나가 우뚝 솟았다. 바로 앞에 고인돌이 있는데, 그쪽에서 보면 영락없는 모습이다. 슬며시 웃음이 나온다. 아주 우람하고 힘찬 느낌이 드는, 인공의 손길이 살피지지 않는 순수 자연석이다. 주변의 정황으로 보아 이 남근석은 본래부터 이곳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니, 일부러 다른 곳에서 가져다 세운듯하다. 남근석이 언제부터 이곳에 있었는지도 알 수 없다. 그러나 후대의 배치라고 해도 아주 탁월한 아이디어다. 크기나 형상 모두 훌륭하니 어디서 구했는지 아주 잘 구했다.

구지봉은 바로 김수로왕 탄생신화의 공간적인 배경이다. 당연히 「구지가」의 배경이기도 하다. 아울러 고대 남근숭배사상의 전형이라고 지목할 수 있다.

필자의 짐작으로 이곳은 필시 가야 부족의 의례 장소다. 다산을 기원하기 위해 그들은 적절한 장소를 물색하였을 터인데, 마치 남근과 똑같이 생긴 이곳의 지형을 그들도 눈여겨보았으리라. 더구나 김해는 크게 보아 경운산과 분산으로 둘러싸인 우묵한 자궁의 형상이다. 그 가운데 세로로 흐르는 해반천 위쪽의 연지는 여성의 생식기로 상징될 만한 곳이다.

물론 이렇게 말하기 위해서는 연지가 옛날부터 존재했던 천연 연못이라는 전제가 필요하다. 연지가 없었다고 하면 늘 물이 흐르던 해반천이 이를 대신했다고 말할 수 있다. 연지는 오늘날 '연지공원'으로 잘 단장되어 김해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휴식 공간으로 남았다.

구지봉은 지금의 내동 자리인 들판 한가운데로 돌입해 우뚝 솟은 봉우리다. 축축이 젖은 해반천이나 혹은 연지를 향한 돌진이니 마치 용약勇躍하는 형상이다. 그래서 옛 가락인들은 남근과 동일한 형상을 지닌 이곳 구지봉 위에 또 남근을 닮은 돌 등을 고이 모셔 놓고 정성껏 다산과 풍요를 기원하였으리라. 의례 후에는 기원에 걸 맞는 집단 연회나 놀이가 이곳에서 질펀하게 펼쳐졌으리라. 이때 널리 불렸을 노래는 필시 「구지가龜旨歌」였을 것이다.

다시 전설로 돌아가 "너희들은 이 산 꼭대기의 흙을 파면서 '거북아, 거북아, 머리를 내놓지 않으면 구워 먹겠다.'라고 노래하며 춤을 추어라. 그러면 곧 하늘에서 내려오는 대왕을 맞이해 매우 기뻐 춤을 추게 될 것이다."라고 한 대목을 상기해 보자.

그리고 거북이에게 머리를 내놓으란 말을 귀두를 내놓아라 라고 바꿔 보자. 내놓지 않으면 구워 먹겠다는 구절은 자연스레 용도 폐기하겠다는 협박으로 바뀐다. 이로 보아, 남자의 기능을 상실하지 않았다면 어서 빨리 교접을 통해 아이를 생산하자는 재촉이 곧 「구지가」의 내용이다.

한 걸음 더 미루어 보건대, 구지봉에서의 춤과 노래를 통한 집단연회나 놀이는 분명 성행위로 이어졌을 것이다. 그리하여 구지봉은 누구에게나 새로운 생명의 수태 장소로 기려졌고,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가야국을 연 수로왕과 나머지 다섯 왕들에 대한 신화도 생겨나지 않았을까? 나아가 수로왕의 그것이 남달리 컸다는 설화 역시 싹틔었을 것이다.

구지가는 뒷날 해신에게 잡혀간 수로부인을 구하기 위해 불렀다는 「해가海歌」로 계승된다. 「해가」의 내용은 아래와 같은데, 이 노래에서도 거북이가 지니고 있는 의미 또한 야릇하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노래를 에로티시즘의 측면에서 해석하곤 한다.

**거북아, 거북아 수로를 내놓아라
남의 부녀 약탈한 죄 얼마나 크더냐
네가 만일 거역하고 내놓지 않는다면
그물로 잡아내어 구워 먹으리라.**

구지봉의 고인들은 남방식이다. 상판에 새겨진 '구지봉석龜旨峯石'이란 글씨는 조선 시대의 명필 한석봉韓石峯이 쓴 것으로 전해 온다. 이 고인들은 규모가 다소 작은 편이다. 안내문에 따르면, 240×210×100cm의 크기라고 한다. 이 지역을 다스리던 추장의 무덤인데, 기원전 4~5C경에 세워진 것으로 미루어진다고 한다.

**다음 회는 <무척산 모은암> 다섯 번째 이야기 “바위성을 차지한 모은암”으로 여러분
곁을 찾아오겠습니다.**